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5주일
2021. 07. 11. (나해) 제2276호

대구주보



칠곡성당 에식
2021. 6. 10
Bernard

칠곡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아모 7,12-15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2독서** 에페 1,3-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르 6,7-13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신앙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



대해본당 주임 | 소요한 요한 신부

옛날 유럽 작은 마을에서 사제와 교우들이 소박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굽는 교우들, 구워진 벽돌을 옮기는 교우들, 목수일을 하는 교우들, 미장일을 하는 교우들이 있었고, 그 밖의 교우들도 자기 나름대로 성당을 짓는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교우들은 몸이 부자유스러워 성당을 짓는데 교우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교우는 이렇게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당을 짓고 있는 저의 동료 교우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는 매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중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깨끗하고 성한 입을 주셨지. 비록 내가 성당을 짓는 일을 교우들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나의 역할은 다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면 되지.’

그래서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의 역할을 알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매일 성당 건축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당 건축을 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은 장애를 가진 교우의 기도와 칭찬과 격려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장애를 가진 다른 교우들도 기도와 칭찬과 격려에 함께 하면서 성당 건축을 하는 교우들은 더 많은 힘을 얻어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인들의 관계는 높고 낮음의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성 바오로 사도

의 말씀대로(에페 1,4-6)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서로 기도해 주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힘이 되어 주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안에 모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예언자처럼(아모 7,14-15) 모든 교우들도 하느님께 붙잡혀 세례 성사 때 예언자직을 받았고 자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모시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대로 제자들은 파견된 사람으로(마르 6,7)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마르 6,12) 그런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자녀가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하느님의 자녀는 회개하면서 하느님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여 그의 회개를 이끌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말씀,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기도 중에 찾고 하느님이 알려 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적인 건물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의 역할을 기도 중에 찾고 실천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필요**

라합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약속의 땅에 비로소 다다랐다. 여호수아는 예리코로 정탐꾼을 보낸다. 들어갈 만한 땅인지, 행여 누군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약속의 땅을 살펴본다(여호 2,1).

라합. 그녀는 창녀다. 예리코의 임금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신의 고을 안으로 들어왔음을 알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켜준다. 정탐꾼들이 자신에게 왔으나 이미 떠났으며 예리코 임금이 보낸 사람들을 성 밖으로 따돌린다. 라합은 왜 그랬을까. 임금의 의도와는 달리 낯선 정탐꾼들을 왜 숨겨주고 지켜주었을까.

라합에겐 또 다른 힘, 또 다른 무서움이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여호 2,9).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다. “주 당신들의 하느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여호 2,11). 라합에겐 두 개의 권력이 있었다. 하나는 예리코 임금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것이었다. 그리고 두 권력 중 라합은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목숨과 직결된 선택이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이를 살려 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여호 2,13).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타의 민족들 안에서 지켜주시고 구해 주신 하느님의 업적을 들은 터였다.

타민족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져 피하고픈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라합은 하느님의 두려움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 모두를 내어 맡겼다. 예리코의 입장에서 라합은 사회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던 창녀였고 민족을 팔

아먹은 배신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개의 민중이 그러하듯, 먹고사는 문제, 곧 제 삶의 안위는 임금이나 권력자들의 이념과 이해관계 이전의 문제다. 라합은 진정한 권력을 자신과 집안의 안위를 바탕으로 다시 고민한 것이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 “정녕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대한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여호 2,24). 정탐꾼들이 만난 건 창녀 라합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리코의 땅과 그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왔다고 해석했다. 정탐꾼이 본 것은 두려움에 떠는, 제 안위를 걱정하는 예리코 민중들이었다. 그 민중의 모습을 적확히 대변한 이가 창녀 라합이었다.

라합을 두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받아들인 열린 신앙의 모델로 이해하는 해석은 뭔가 부족하다. 열린 신앙, 낯선 것에 대한 개방성...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사회적 약자인 창녀 라합을 통해 일상을 어렵게 살아 배고파 하는 민중의 애환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그런 민중을 통해, 그들의 현실적 갈망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라합과 그 집안은 여호수아가 예리코를 점령하고 난 후, 이스라엘의 품에 안긴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이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여호 6,25). **창녀**

교황 “복음의 중심에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무일푼으로 거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일하기. 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 지역 마르델플라타교구의 두 아르헨티나 자선단체인 노체 데 카리다드(이하 '자선의 밤')와 호가르 데 나자렛(이하 '나자렛의 집')의 자원봉사자들이 나눔을 실천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수년간 이어온 일이다. 남반구의 겨울이 시작되는 최근의 맹추위가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일은 배로 늘어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내는 짧은 스페인어 영상 메시지에서 그 노력에 대해 인사와 감사를 전했다.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마르델플라타교구의 ‘자선의 밤’과 ‘나자렛의 집’ 봉사자들에게 특별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중심에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교황은 특히 마르델플라타교구장 가브리엘 메스트레(Gabriel Mestre) 주교가 언급한, 향후 3개월간 이어질 아르헨티나의 겨울과 관련해 최근 시작한 ‘사랑과 연대’ 사업에 대해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약 130명의 노숙자들에게 주거, 휴식,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개의 호텔을 임대하는 것이다. 교황은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가브리엘 주교님은 저에게 마르델플라타 해안의 혹독하고 습한 겨울을 이겨내고 모든 이를 위한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두 개의 호텔을 임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평신도, 성직자, 후원자들과 모든 부서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자매들의 모습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스트레 주교는 경제·심리적 혹은 중독의 이유로 노숙자들이 생긴다며, 작년에는 추위로 인한 희생자가 없었지만 동절기 동안 많은 이들의 상황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주최자들은 소중한 기부 of 형태가 새로운 주거문제 해법이라는 연대를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사수’ 혹은 ‘계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현계흙(玄啓欵) 플로로는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많은 역관을 배출했으나, 그는 역관의 길을 택하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며 살았다. 1846년의 순교자 성 현석문 가롤로는 그의 아들이며, 1839년의 순교자 성 현경련 베네딕타는 그의 딸이다.

플로로는 일찍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면서 살다가 1791년의 신해박해로 체포된 후 석방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 플로로는 동료 신자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였다. 또 손경윤 제르바시오, 김이우 바르나바, 정인혁 타대오 등과 함께 자주 신앙 집회를 가졌고, 신입 교우들을 인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주문모 신부가 박해로 피신을 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집을 피신처로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집은 ‘6회’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었다. 6회란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明道會)의 하부 조직이요 비밀 집회소였다.

1797년 9월, 플로로는 아우가 살고 있는 경상도 남쪽의 동래 지방에 간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마침 그 지역에 나타난 영국 배를 보게 되었는데, 상경한 뒤 황사영 알렉시오를 만나게 되자 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교우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을 때, 현계흙 플로로는 기회를 틈타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온 일가친척들이 시달림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4월경에 숨어 있던 곳에서 스스로 나와 포도청에 자수하였다. 이후 그는 포도청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아무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은 조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플로로는 10월 초까지 포도청의 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다가 황사영의 문초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되자, 상급 재판소인 의금부로 이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으며, 1801년 12월 10일(음력 11월 5일)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의 나이 38세였다.



현계흙 플로로
(1763~ 1801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교황청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 2021. 8. 21(토)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기부하면 교황청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전해져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금은 백신 비용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504-10-413509-7 예금주_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053)423-3008



16. 가정의 현실과 도전 ⑦

가정은 사회에 꼭 필요한 재화이기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가정은 법, 경제, 사회, 재정 분야에서 공권력이 적절한 가정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시노드 교부들은 또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장애아라는 어려운 시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생명이라는 선물에 충실한 고귀한 모습을 교회와 사회에 보여 줍니다. 이러한 가정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약함의 신비를 환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길을 가며 이전에는 예상치 못한 태도와 언어, 이해와 공감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쁨’, 44.47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과소비 줄이기 - 장 볼 것은 미리 메모해서 필요한 것만 구매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26호 정답

1. 아비사이, 요압, 아사엘 2. 바빌론 유배 이후 3.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 4. 하나님의 계약 궤를 다윗 성에 모신 후



미사 안내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2일(월) 10:30 범여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7월 13일(화) 11:30 계산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2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7월 14일(수) 10:00 평화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7월 12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5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2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7월 17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7.17(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상담

대상: 고3, 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 피정

일시: 7.15(목)~18(일) / 7.22(목)~25(일)

장소: 성모솔숲마을(청도)

지도: 박상호 신부

문의: (054)373-3955

(010)6630-3816

창작성가 공모 2021. 3. 19. ~ 9. 30.



공모부문 : 교회 전통음악 / 가톨릭 생활성가 **참가자격** :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시상내역 : 대상(1명) 500만 원 / 최우수상(2명) 300만 원 / 우수상(2명) 200만 원 / 장려상(5명) 100만 원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6~9 또는 이메일(pr@dgca.or.kr)

※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aegu-archdiocese.or.kr)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개원 36년

달성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아토피·만성피부·여드름
성형외과 전문의 눈물 지방·피지낭종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 서우태(루카)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행사 | 모임

8월 카나혼인강좌

일시: 8.8(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7.29(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7.20(화)~21(수)
 시니어: 7.27(화)~7.28(수)
 문의: (054)382-0091

농민주일 맞이 농민장터

일시: 7.18(일) / 장소: 계산성당 마당
 물품: 유기농 농산물
 (안동교구 우리농 지원)
 주최: 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선교게이트볼 7월 친선대회

일시: 7.13(화) 9:00~13:00
 장소: 대구 중구 대봉교구장(인조잔디)
 대상: 회원·냉담회원, 비신자(당일접수)
 회비: 무료(중식, 간식제공)
 문의: 선교회장, (010)3519-0109

교육 | 모집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7.17(토)~8.14(토) 4주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화상영어 상시 모집중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서준영 라파엘 신부, 650-3529

남대영기념관 여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강점 외) 및 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한국평협 제15회 우리 성가 공모

주제: 성 김대건 신부님 찬가, 한국 순교자 찬가
 마감: 8.20(금) 17:00
 접수: clak0723@naver.com
 www.clak.or.kr(홈페이지 참조)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마감: 채용 전까지
 주소: 영천시 화산면
 문의: (054)334-2006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장세훈(레오), 김재철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 (09:00~17:3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h.co.kr>

채용 | 안내

대덕성당 반주자(유료) 채용

문의: 626-3138

용평마을 양로원 직원 채용

업무: 조리원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계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원름,투름 용달이사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헬스텍피아 보청기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행,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이원 의료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뜸·부항기
 주열기·체온계·육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필필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